

2024년 1학기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담당교수: 강남욱(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한국어교육학과)

1. 일정: 2024년 3월 26일
2. 장소: 중앙다문화교육센터
3. 내용: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신규교 컨설팅

용어정리

-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한국어, 이중언어
- 이중언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언어
- 이중언어는 단순한 보존은 계승이 된다. 말하는 환경은 되나 문해력이 해결이 안되는 상황
- 한국어 교과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모국어 수업(중국어, 러시아어 등)에서 그 언어로 되어있는 학술, 교과 내용을 접한다 하더라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 검증방법에 대한 답변

- 이 연구의 결과를 지표화하기 어렵고 교수학습 검증방법은 없음(사전, 사후 세트 없음)
- 하지만 여러가지 정서적인 부분의 질적변화는 가능할 것 같음(언어성 같은 경우, 학생의 반응 정도, 학생주도성, 자기조절,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의 기대감, 이중언어 학습에 대한 높은 기대감-내 삶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안함, 이중언어 혹은 한 언어 사용의 정서적 안정감(불안검사), 독서지수(예, 중국어 독서지수O, 중국어능력시험 HSK X) 등
- 연구학교 과제 실행 후 학생의 언어정도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얼마나 나아졌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정형화된 검사 NO, 질적인 관찰 OK(랭귀지 포트폴리오..)

본 연구의 주안점

- 산발적인 교수방법을 모으는 것이 목표(유형화)

-
- 교수학습개발(예, 토론-실행-환류 등)-교수법(교수방법)의 선례를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기타사항

- 운영과제 구성: 상위의 주제(꼭지)를 묶어서, 상위주제1의 언어성/문화성/시민성으로 나누어 고민하는 것도 어떨까?
- 매개능력(미데이션): 말 중개
- 언어산출, 언어이해를 언어중개능력이라고 함.
- 문해의 노출: 예) 타종, 판넬, 안내문 등을 다중언어로 노출
- 틀, 관념, 개념+상호문화능력+시민성(부수적인 언어태도)을 갖고 듣는다
- 병존언어
- 프로그램 세팅이 잘 되어야 함-이 수업이 언어 수업에 가까운지, 교과 수업에 가까운지
- 수업 중 이 언어 사용했다가, 저 언어 사용했다가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다. 단 수업의 세팅과 목표가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다면.
- 언어자원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공간 조성, 언어의 메타적인 생각

-
1. 일정: **2024년 2월 28일**
 2. 장소: 중앙다문화교육센터
 3. 내용: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워크숍

문해

- 그 나라 문화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 가족 문해: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는가?

학습(學習)의 속뜻

- 학이시습지는 흔히 알고 있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의 뜻이 아니라
- 배우고 나서 어느 때(순간)에 이르러 그것을 내가 몸으로 익히게 되면
- 뜻으로 재해석
- 언어도 같은 상황(패턴)일 듯: 안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 내가 어떤 성취를 어떤 코칭을 받아 이루어냈을 때 언어 자극 안에서 충분한 불역열호(칭찬)의 경험을 받음 → 이럴 때 상승효과!

제1언어, 제2언어, 외국어

- **제1언어(L1)**-약3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언어 화자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習 또는 習得)된 언어 / 통상적인 경우 가정어 계승을 통해 이루어짐
 - 어린 시절에 가장 처음으로 습득한 언어/ 사용에 있어 더 우세하거나 선호되는 언어
- **제2언어(L2)**-학습자의 사회적 맥락에서 공식적,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다소 주지적인 입력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익혀(習>學)나가는 것
 - L1을 습득한 후에 학습된 것으로, 일차언어에 비해서 숙달성이 낮은 언어이며, 그 언어는 각 개인에게 미숙하거나 낯설고 새로운 언어
 - 원어민 화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 L1보다는 미숙하거나 언어 수준의 숙달성이 낮은 언어
 - 모국어를 학습한 이후에 또 하나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
 - 어린이가 제1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잠재의식적인 과정
 - 제2언어가 노출되는 경우와 교실 상황에서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경우
 -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인 베트남어 화자
 -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온 외국인 자녀
 - 다른 나라로 이주를 경험하면서(보통 어릴 때) 현지에서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경우
- **외국어(FL)**-학습자의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지만 여러 가지 목적과 동기에 따라(때로 타의적으로) 배우게(學)된 언어

	제2언어의 습득	외국어 학습
성격	비형식적 학습, 자연적 학습	형식적 지식, 명시적 학습
목적	공인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어 그 사회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인 참여를 위해서	외국 여행이나 그 나라 말을 쓰는 원어민 화자들과의 의사소통, 외국 문학이나 과학, 저작물 읽기 등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	살아가는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환경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공식적인 수업과 환경적 지원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나의 생각> 본교의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제2언어일지, 외국어일지 개념을 정립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그래야 방법적인 면의 접근이 맞춤형으로 될 것으로 보임.

※모든 수업, 특히 초중고생은 기본적으로 학습의 경험보다는 유사학습의 기회(유의미한 접촉의 기회)로 경험하는 것이 좋음.

아동-청소년-성인의 언어 습득과 학습

터득하면서 '습득'한 언어와 고찰하면서 '학습'한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

- 영유아의 언어 **깹**, 아동의 언어 **깹>學**, 성인의 언어 **깹<學**
- 기본적으로 습득의 바탕은 가정의 양육자. 계승
- 성인의 경우 언어(외국어)는 교육 기관에서
- 아동의 경우 구어 소통과 기초 문식성(literacy) 교육은 가정에서 / 언어 수용과 산출의 조정 방법은 교육 기관에서
- 청소년의 경우 문식성의 확장과 성장, 훈련을 방향으로(외국어의 경우는 성인의 방법보다 더 가깝게, 심리·정서에 맞게끔) / **청소년은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가 중요!**

지금 내가 만날 학생들은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을까, '습득'하고 있을까?...혹은 어떤 다른 맥락 속에 있을까?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주배경 학습자의 조건

- 제1언어, 제2언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가 모두 있음.
- 이주 연령에 따라 영(0)언어 상태가 되기도 함.
 - 어느 쪽 언어로도 문식력이 형성되지 않고 언어 사용이 불완전한 반(半) 링구얼리즘 상태가 존재하기 함.
 - 자국의 모국어 교육 경험, 가정 문식력의 상황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한국어 접촉 맥락,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언어의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판단은 학교현장에 있음. 그 나라 말의 문장을 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 주 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주 언어가 터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손을 연습하는 것은? 어느 걸로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

제2언어(외국어) 습득의 다섯 가지 가설

외국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학습'에서 '습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 ① 습득-학습 가설 **學과 習은 다르다.**
- ② 자연적 순서 가설 **習에는 일정한 절차, 규칙이 있다.**
- ③ 감시 장치 가설 **學은 習을 감시하고 점검하고 때로 방해한다.**
- ④ 입력 가설 **習은 '이해 가능한 입력(i+1)'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⑤ 정의적 여과 가설 **마음의 근심 걱정은 '習'이 잘 안 되게끔 방해한다.**

제2언어(외국어) 습득의 다섯 가지 가설

위 가설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한국어 습득을 살펴보면

- 학습의 **조직화나 체계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민감하지 않음**
- **언어 사용 규칙(문법)의 터득이 때로 L1처럼 수월하게 될 때가 있음**
- **감시 장치는 별로 작동하지 않음.** 즉 의식적인 학습이나 외워야 할 것으로 인해 수행 능력이 방해받지 않음
- **이해 가능한 입력(i+1)을 가능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개인차가 큼**
- **정서적인 안정(신남, 즐거움, 재미)이 전제되면 정의적 필터는 별로 작동하지 않고,** 심리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기도 함.(한국어학급을 마치고 환급 후 말을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는 경우)
- **동기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자기 객관화 또는 자기 통제가 충분치 않아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기도 어렵고 **동기를 형성시켜 주기도 어려움.**(특히 청소년기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며, 교과 공부에 대한 동기 부족과 맞물려 학습 부진으로 이어짐)

어떤 형태, 어떤 과정으로 이중언어자가 되는가?

-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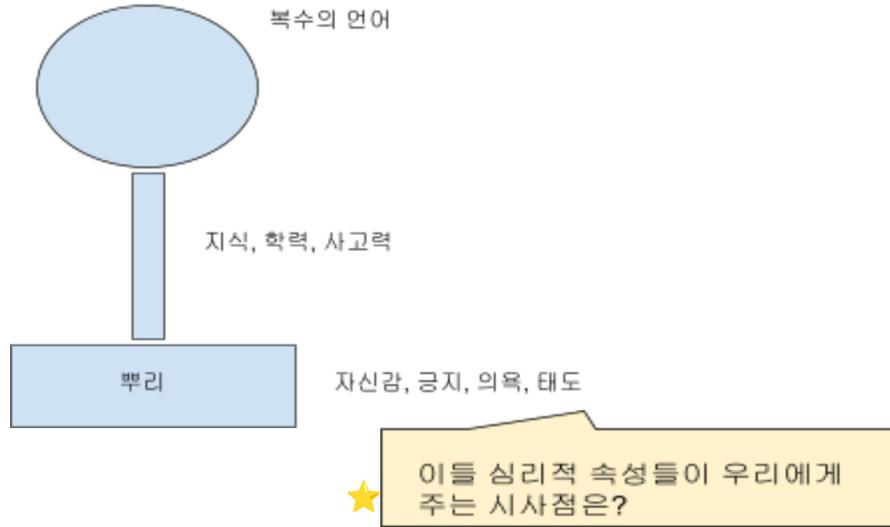
동시형 이중 언어 습득	순차형 이중 언어 습득
두 언어를 동시에 접함	두 언어를 차례로 접함
국제결혼 가정(집에서 동시에 양 언어)	중도입국, 외국국적 자녀(집에서 한 언어, 이주로 새 언어)
두 개의 언어를 접하는 규모와 수준의 균형이 문제가 됨	언어 능력의 토대가 되는 제1언어의 성숙도가 문제가 됨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학습능력은 높으나 사춘기에 들어 정체성 혼란이 폭발함)	일반적인 한국 사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한국이 의외로 '제1언어의 성숙도'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Cummins**의 이중언어 발달의 4원리

- [원리1] 상승 효과를 낳는 가산적 이중 언어 - 모어가 사회의 주요 언어인 경우 긍정적인 면이 많은 가산적 이중 언어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는데, 모어가 사회의 소수 언어인 경우는 소중한 언어를 잃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감산적 이중 언어가 됨.

○ [원리2] 제2언어 상호 의존의 원칙



- [원리3] 회화 능력, 교과 학습 언어 능력 - 기본적 의사소통능력(생활한국어)을 습득해도 인지적 언어사용능력(학습 한국어, 교과 문해력)을 가지려면 4~5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원리4]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동 충족의 원칙 - 어찌 되었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고 접촉하고 교류하고 소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원리 / 양적 교류가 아닌 질적 교류의 공급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한국의 경우, 분리형 한국어 집중 학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이중언어 습득의 목표 설정과 소요 시간

- 언어에 따른 표준적 결과는 없음. (캐나다 몰입 교육 연구에 따르면 약 5,000시간 이상, 헛수로 6-7년 원어민에 가깝게 되는 것으로 파악)
- 한국에 온 이주 아동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 즉 집에서도 제한적으로 쓰거나 안 쓰는 계승어와 현지어가 짝을 이루는 경우, 현지어의 회화 습득 시간은 상당히 빠르지만 교과 학습과 관련된 교실 담화, 독해 능력, 추상적인 어휘의 습득은 제1어가 제대로 발달한 경우라도 5-7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임. 9세 이전인 경우 대부분 모어(계승어)는 쇠퇴, 소멸

- 즉, 본인의 제1어(모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화와 학습 언어 사이에 큰 격차가 있고,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교육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꾸준히 필요함.
- 기본적으로 이중언어의 유지 또는 새 언어의 습득 과정에는 ★ 해당 사용자의 동기, 동화의 의지(의향), 삶의 쓸모, 자기 정체성과 같은 정의적 요인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침.

이중언어 문해의 '매튜 효과(Matthew effect)'와 시사점

한국어에서 좋은 문해 공급을 받은 학생이 가지는 '문해'의 밀천(자본) VS 이주 배경 혹은 이중언어 배경의 학생이 가지는 '문해'의 밀천(자본)

자본이 많은 학생은 더 큰 자본을 쉽게 벌고, 자본이 없는 학생은 고통스럽게 애써도 조금씩 벌고, 그 격차는 가면 갈수록 극명하고 따라가기 힘들어진다.

<시사점> 1. 어떤 자원을 잘 써서 따라갈 수 있게 할지? (중국어 수학을 잘했다면-->한국어 수학으로 따라갈 수 있게

2. 평균까지는 올라가도록 하자!

우리가 바라는 인재, 이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한국 사회

강남욱(2022), "다중언어 다중문화 사회의 교사의 역할 고찰과 미래"제언

- 국어교육의 역할 변화와 "Teacher Talk"의 새로운 정련
 - 다른 한국어 듣기, 낯선 한국어 듣기, 불완전한 한국어(발음/문법)에 열린 태도로 듣기.
 - 어려운 개념을 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기, 적합한 피드백과 메시지 주기
- 언어 다양성이 있는 교실의 교과 운영(교수-학습) 역량 제고
 - 분리적 관정보다 교과별로 다언어적 자원을 자극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필요

- 문식성(literacy)과 사회적 행위자(social agent)에 대한 인식 전환
 - 표면적 '사용 언어'로 문해 수준을 재단하고 분리하지 않으며, 다중-복합 문식성, 미디어-디지털 문식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접근 필요
 - 융,통합적 시대, AI 시대, 이동과 이주 중 이질적 문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변혁적(transformative) 역량을 가진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agency) 고려

*변혁적 역량: 대단한 것이 아니라 틀(꼴)을 바꾸는 것, 어느 곳에 계속 이동하여 생활할 때 그곳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역량

<요컨대>

-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자원으로 삼아 긍정적 발전을 가져올 인재
- 다중언어문화 정체성을 건전하게 형성하면서 인지와 정서를 성장시킨 인재
- 다중언어문화 정체성과 학습자 주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리터러시와 레퍼토리를 상황과 공간에 따라 유연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변혁적 역량을 가진 인재
 - 국어를 전승, 전달해 온 교육에서, 한국어를 지원, 보조하는 교육을 지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 공유하는 교육으로.
 - 문해의 맥락통일성(contexerence, 컨택시어런스)을 확보하여 보편성과 지역성을 통찰하여 실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시민 교육으로.
 - 이주배경의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이 인재가 되는 거시적 특과 기초를 유지하는 교육으로.

네 가지 화두

1. '멀티(multi)'에서 '플루리(pluri)'로
 - a.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어떤 공간에서 여러 언어와 문화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
 - b. 다중언어주의(plurilingualism), 다중문화주의(pluriculturalism): 각 개인이 수준이 다른 다수의 언어와 다수의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

- c. 다중언어 학습은 여러 언어를 쓰도록 함.
- 2. 한국어를 포함한 다중적 '리터러시'로
 - a. 한국어 또는 다중언어로 익히는 '나 자신의 리터러시'가 바로 미래 사회 인재 성장의 핵심 요소
 - b.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 i. 기초 문해력의 중요성: 현장에서 **semilingualism** 사례를 통해
 - ii. 양손잡이 문해의 가능성: **plurilingualism**의 관점에서
 - iii. 교과 문해력의 중요성: 특히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의-**교과 교육에서의 '다중언어역량'**에 대해서
 - iv.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력 제고 필요성: 다시 한국과 한국어를 떠난다 하더라도 **학습자 주체성(agency)**의 의미에서
- 3. 5Cs '공동체(communities)'를 고려하여
 - a. 학교 내 다양한 이주 배경(계승어, 제2어 등)을 가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 b. 학교 밖 지역 어르신(노인) 및 특정 연령 계층과의 정기적인 대화 연습
 - c. 학교 밖 지역 특정 직업군과의 직업 탐색, 인터뷰, 조사 활동
 - d. 지역 내 이주자 기관에서의 번역 활동, 봉사 활동
- 4. 언어 발달에 대한 관찰과 대처의 방향
 - a. 생활 한국어-기초 학습 한국어-교과 중심 한국어의 종합적 접근
 - b. 그룹별 무학년 체계에서 좀더 세분화된 학령군별 접근의 필요
 - c. 교과목별(언어(국어), 수학, 과학, 사회과) 상세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주해
 - d. 숙달도의 진단, 성취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발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꾸준히 학생의 '포트폴리오'로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

담당자를 넘어: 전도사로, 선도자로, 리더로

→ 언어 다양성의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 한국어는 '우선'이지만 '우월'은 아님

◆ 우리 모두의 일

◆ 학생에게는 위탁 또는 한국어학습 안에 시간도 중요하지만 **환급 또는 교과 진입 후가 더욱 중요**

→ 교과 교육과 학교 전반에 한국어 교육적 공감대 필요

- ◆ 다중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교과를 가르칠지, 교과별로 고민해야 함

→ 이주배경학생 대상 교육의 삼원(三元) 차원의 접근

- ◆ 언어와 소통, 심리와 정서, 진로와 동기 의 “삼각 편대”
- ◆ 세 가지 요소는 상호 상승적인 것(특히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갈수록)
- ◆ 언어성 판단에서 정의적 필터는 아동,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



→ 지역 기반의 새로운 관점

- ◆ 삼원 요소에서 지역은 가장 직접적인 ‘환경’을 구성함
- ◆ 한국어 또는 다중언어로 ‘접촉’하고 있는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
- ◆ 지역 기반을 좀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유관 기관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나의 동네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를 마주하고, 접촉하고, 다중언어적으로 말하게 하라!)

→ AI의 교육은 주된 것과 보조적인 것을 의도하여

- ◆ 교수자가 A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교수자를 통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알아서 하는 ‘자학자습용’으로 혼자 하게끔 두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적극적으로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연습하여 이것이 학교 밖 시간에서도 이어지는 방향을 찾아야 함.